

월간 PIGHEAD LAB

#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 41 호

2026.3



조은영\_ L♡보ME 칼럼 2. 맛의 이름, 이름의 맛

두번째 원고

김희진\_ 살라리 살라

스물여덟번째 원고

한량윤씨\_ 소희재: 희망을 부르는 집

여덟번째 원고

김혜현\_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섯번째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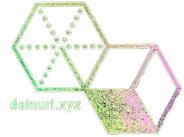
X\_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Youtopia)

열일곱번째 원고

이채연\_ 엄마라는 늑

서른일곱번째 원고

## L♡보ME 칼럼\_ 2. 맛의 이름, 이름의 맛



조은영

기획자 / @ dalnurilab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씨가 쌀쌀해 따뜻한 게 생각나 자주 가는 육개장집에 들렀다.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편이지만, 특별히 애호하는 음식도 많지 않아서 칼럼을 쓸 메뉴를 찾다 ‘삼계탕’과 가운데 소리가 유사한 ‘육개장’이 생각났다, 게다가 이 집은 언제 가도 맘 편히 밥 한 그릇 푹딱 비우고 나오는 집이라 소개를 해도 좋겠다 싶었다.

얼큰한 육개장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육개장 이름의 ‘개’가 무슨 자(字)인지 궁금해졌다. 사전을 찾아보니 삼계탕(蔘鷄湯)은 주재료인 닭과 인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한자가 있는 반면에, 육개장은 한자이름이 없어서 이름의 어원을 인공지능에게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육개장은 삼복더위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먹던 개장국(보신탕)에서 유래했고, 개고기를 넣어 끓인 ‘개장’에 쇠고기를 뜻하는 ‘육(肉)’을 합쳐서 개고기를 먹지 못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고 끓여낸 것이 시초라고 한다. 우리 토종 음식으로 조선시대에 소 도축이 잦았던 경상감영이 있었던 대구 지역의 향토 음식이기도 하고, 그 당시엔 ‘대구탕반’이라고도 불리었다. 오후라!

반면에 삼계탕은 일제강점기에 부유층이 닭백숙에 가루 인삼을 넣어 먹던 ‘계삼탕’에서 유래해서, 1960년대 들어 인삼(수삼)을 그대로 넣는 조리법이 일반화되면서 1970년대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의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문화는 1960년대 이후에 정착된 것으로, 과거 조선시대에는 복날에 서민들은 주로 개고기를 넣은 개장국(보신탕)을 즐겨 먹었고, 양반들은 개고기 대신 쇠고기를 넣은



2026년 2월 12일 수라전통 육개장 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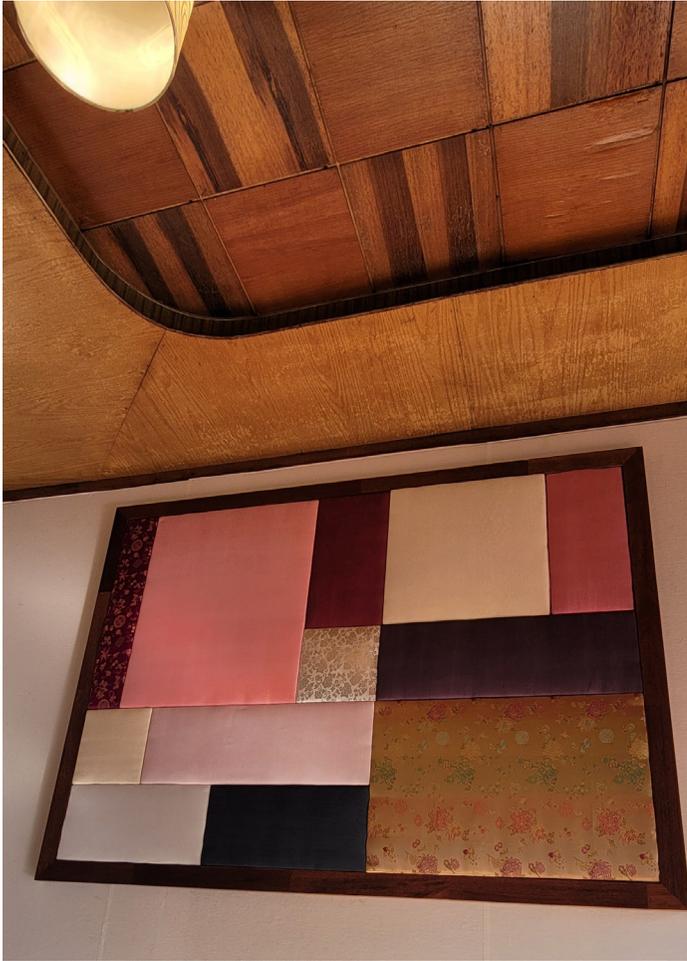
육개장을 즐겨 먹었다. 삼계탕의 원형으로 보이는 닭백숙은 조선시대에서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삼계탕은 근대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자들이 닭백숙이나 닭국에 인삼가루를 넣어 만들던 것이 시작으로 1960년대에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인삼의 장기보존이 가능지고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토종 음식인 개장국을 밀어내고 오늘날 복날 음식의 대표 요리가 되었다.

당연히 토종음식으로 알고 있던 삼계탕이 근대화과 산업화 과정과 맛 물려 만들어진 메뉴라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80년대에 자주 들렀던 영양센터가 기억났는데 요즘은 도통 가지 않아서 명동과 종로, 그 밖에 서울지역에 아직 남아 있는 걸로만 안다. 80년대 당시 중산층 가족이 양식과 한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치킨과 양배추사라다, 스프와 삼계탕을 같이 판매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메뉴가 지금 생각해보면 촌스럽다 느껴진다. 식재료인 닭이 보급화 되면서 서민과 중산층 가족이 갈만한 프랜차이즈 식당의 새로운 메뉴로, 양식과 한식을 동시에 맛보고 '영양'도 채우라는 의미에서 스포츠센터와 '영양'을 합친 것 같은 영양센터의 추억이 아른아른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측해보면, 토종음식인 육개장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식재료나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사용했던 고사리와 숙주나물을 닭고기나 소고기를 함께 넣고 끓였던 '제사문화와 연결된 음식문화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옛날엔 집에서 키우던 개와 닭을 잡아 먹는 게 다반사 이였을텐 데, 중국은 오리를 땅에 묻고 키우다 잡아먹었던 문화가 있었다고 하니 한국은 그에 비하면 양반인 건 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 때로부터 3-4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우리 토속음식인 육개장을 삼계탕보다 즐겨 먹게 된 건 우연일까? 어쩌면 필연일까?



[www.dalnuri.vercel.app/](http://www.dalnuri.vercel.app/)





2026년 2월 12일 수라전통 육개장 본점

## 살라리 살라

김 희 진  
노동자



서투른 욕망으로 나는 (결국) 산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삼킨 침에 피비린내 같은 것이 나서 이것을 축이고자 적당한 이를 찾아다니지만 앞이 잘 보이지가 않기에 우두커니 서있다. 한기가 몸을 채우고 바람도 불어 나를이끄니 나는 무엇이든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끝난 것일 수도 있고, 죽은지도 오래 지났기에 오히려 숨기지 못하는 한기일지도 모른다. 벌거벗은 기분, 벌거벗겨진 기분, 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사방팔방을 뛰어다녔다.) 또 한번 주문을 원다. 사실을 살게 하라. 사실이/사실을 말하게 하라. 사실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사실로 살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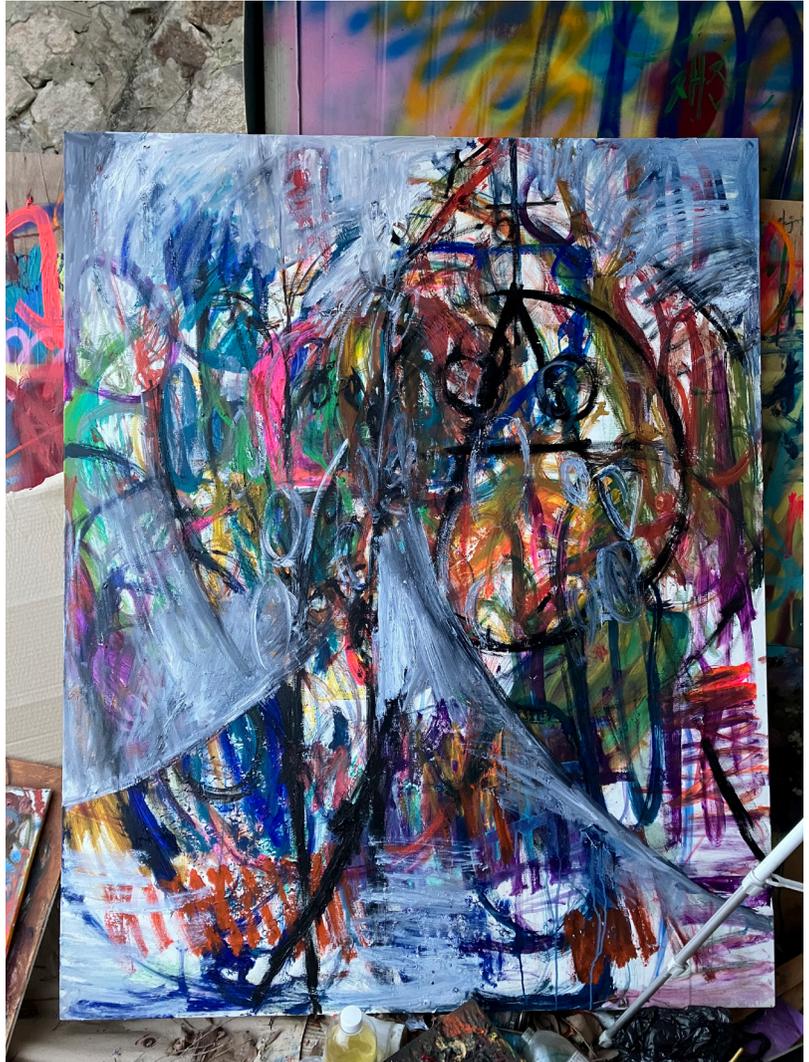
배에 구더기가 들끓는 것인지 어떤 일인지 속이 불편하고 부풀어 오르기에 잠을 잘 청할 수가 없다. 개중에 떠오르는 생각도 모두 형편없는 것이라 차라리 머리를 흔들다가 침대에 엎드려 휴대폰을 좀 만지작거리며 죽음 자체는 미뤄둔대도 자기 사살과 같은 키워드로 그 주변을 건드린다. 캄캄한 밤에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실래도 배가 더 부풀어오를까 겁이 나서, 그러다 터져버리는 육신을 떠올리며 그만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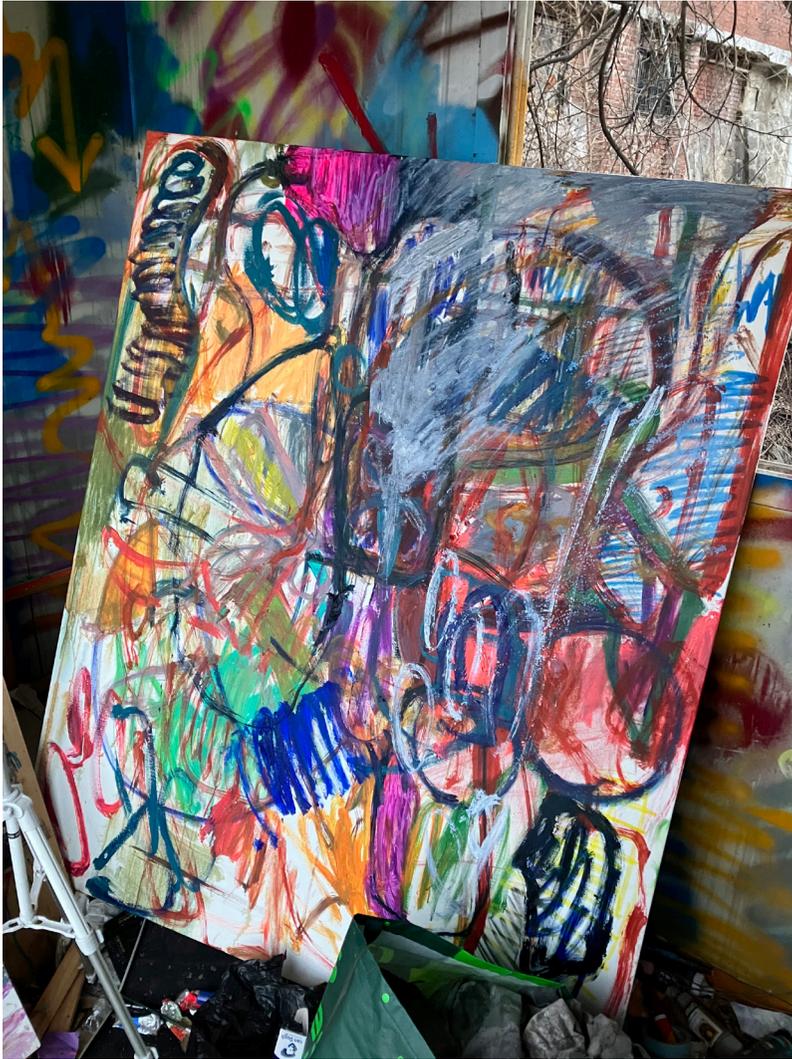
애초에 하는 말이 그런 것이지만, 이렇게 문드러진, 그런 다음에 생을 잃은 고기는 어떤 맛을 낼지, 향을 낼지 몰라서 떨리는 것 같다. 깨진 액정 때문인지 손 끝 어딘가 미세하게 베인 질감이 경련을 부추긴다. 망할 놈, 가여운 놈, 청승맞게 버려진 주제에 흑한을 건디며 꽃이라도 피어낼 의무를 진 것처럼 저렇게 서있느냐.

## 41. 2026.3

죽으려면 어서 죽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얼씨구 절씨구 또 왔네, 날 부르는 말이 처음부터 내 이름은 아니었는데 장터 한가운데서 누가 툭 던진 소리가 자꾸만 나를 불러 세워서 어느새 호적도 그리로 옮기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추임새 섞어 다시 엮어진 몸뚱아리 찢어서 바닥에 가지런히 심는 사이에 꼬리가 그 뒤에 콩지처럼 달려서 마치 팽과리 소리 뵙, 북소리 둥둥, 장단 맞추듯 끊어지지 않고 주르르 흘러나오네

혼잣말이라 말하기엔 장단이 너무 또렷해서, 흥헤야 형헤야 어깨춤이 절로 들썩일 만큼 오래 이어졌고, 그 사이로 공기를 얇게 넣어 살고 싶지 않은데도 살아버렸고, 장꾼들 야유가 내 등을 떠밀어 와그르르 웃음 반 야유 반 속에 서 있었고, 상처라기엔 너무 오랫동안 아물지 않아서 하나의 움막, 판자집, 유랑천막이 되었고, 그 집 안에서 나는 넘어졌다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래도 또 와버렸으니 얼씨구 좋다 한 번 더, 곳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북도 없이 입으로 북소리를 내야 했고, 멈추기엔 늦었으니 다시 시작해야 했고, 이 더러운 반복을 나는 오늘도 한 번 더, 아이고 신세야 하면서 적는다, 죽으려면 어서 죽지, 얼씨구 절씨구, 그러나 나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 소희재: 희망을 부르는 집

본채를 본격적으로 공사하기 시작하면서 공간에 대한 열개가 세워졌다. 가만히 두고 공간을 상상해 보니, 벌써 부터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래, 이제는 시간의 문제이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구들장 방이 딸린 한옥 스튜디오!

그러나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간의 크기였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일산에 있는) 9평의 작업실의 공간도 감사하기만 했는데 막상, 벽돌로 증축하고 벽을 허물어 대청마루를 메꿨음에도 공간의 절대적 넓이는 아직도 부족하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창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목수한테 일을 맡겨 보는 것이 어떠냐.”

아빠의 개인전을 2개월 정도 앞둔 지난 10월, 부모님의 집과, 작업실에 쌓여가는 작품들을 의식하신 것 같다. 2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속도를 두고, 최초에는 나름의 대안책으로 가볍게 컨테이너 창고가 거론되었다.

컨테이너 창고를 제작하는 곳에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보았지만, 무식해 보이는 무쇠 박스에 그렇다고 딱히 저렴하지도 않은 비용을 쓰기 아깝다고 느껴졌다.

그 무렵, 건축 설계사인 작은 아빠의 후배를 소개받았다. 고향 후배로 같은 직종에 함께 일을 하시다가, 현재는 촌에 다시 내려와 손수 집을 짓고 살면서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마침 상주에 살고 계신 막내 고모 집의 테라스 공사일을 맡아 해주고 계셨는데, 고모는 다소 상기된 말투로 목수님의 일을 칭찬 하셨고, 그 때문에 더욱 신뢰가 생긴 상황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별채가 생기기 전의터

별채가 생기는 위치는 본체의 앞의 공터였다. 공터는 옆과 앞집의 담벼락과 맞닿아 있는 작은 터이다.

그곳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꿈뻑꿈뻑 거리는 눈동자를 가진 누렁이 소는 할아버지가 끌어온 여물을 우걱우걱 씹는다. 그러면 입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그 옆으로는 두 뼘정도 떨어진 작은 문이 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들어가면 할아버지만의 공간이 나오는데 황토로 만들어서 울퉁불퉁한 벽과 천장이 나즈막히 반겨준다. 바닥에는 몇 겹의 이불이 깔려있고 그 위에는 화투장이 있는데 화투장은 비슷한 그림끼리 짝을 맞춰 놓았다. 할아버지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다.



첫 미팅 때부터 돈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중에 목수님과 친해진 이후 듣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의 예산을 듣고, 목수님은 견적서를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다. 목수님의 견적서에는 우리의 예산을 겨냥하여 최대한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꼼꼼하고 섬세한 계획서와 소통방식에 사실은 예산을 넘어버린 수준의 금액이었지만 무조건 이 목수님께 작업을 부탁하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다.

본체는 기본 틀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했지만, 별채의 경우 맨땅에 기초 석을 두고, 수평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다. 정식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닌 농막을 짓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바닥의 주춧돌 위에 목공으로 뼈대를 만들어 건물의 바닥을 만들었다. 이 작업은 건물을 세워야 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여러 번 체크하고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진행했다.

작업은 7일을 예상했지만 거의 10일 넘게 꼬박 작업을 하셨다. 목수님은 나머지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일당을 계산하지 않으셨고, 대신 자유롭게 즐기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한 번쯤 인테리어와 관련한 일들을 일당을 주고 시켜본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내 돈 들여서 ‘을’이 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내 집을 맡기는 것이니 작업자들의 마음에 주인들이 맞춰야 할 때가 많다. 중간 중간 식사와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추가 일에 대해 부탁드리는 일은 조심스럽다. 수틀리면 안한다고 연장을 집어던지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대부분의 일은 손조롭게 진행되어 갔고,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목수님의 성향과 잘 맞아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로 끝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별채의 공간 용도는 창고가 있는 게스트룸이다. 아무래도 본체에서 있던 ‘방’들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막상,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기초 바닥 작업

나무로 직접 창틀을 제작하였다.



그래서 휴식이 가능한 공간과 작품을 넣을 수 있는 창고개념의 공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재료는 합판과 판넬, 보드, 단열재 정도가 들어갔다. 기본적으로 조립이 가능한 ‘샌드위치 판넬’을 뼈대로 삼았고, 안과 밖의 마감재는 합판과 가공목재를 사용했다. 사실상 ‘농막’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목조주택처럼 보인다.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촌집의 로망은 집안과 밖의 ‘자연스런 이어짐’이라고 생각한다. 똑 떨어지는 도시적인 풍경의 시크함도 좋아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바랬던건 자연과 최대한 가깝게 두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쪽 면은 창으로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다. 창을 내는 쪽은, 반대편에 대나무 숲이 보이는 위치이다.

나는 처음부터 대나무를 별채에 앉아서 보아야 했다.

창문은 유리로 하고 싶었지만, 투명 렉산으로 마감했다. 목수님이 유리보다 렉산이 더 저렴하다고 추천해주셔서 긴가민가 했지만 믿고 진행했다.

다 완성하고 보니 사실, 유리를 대체할 만한 투명한 마감 재료는 없을 것 같다고 새삼 느꼈다. 렉산은 조금은 더 저렴할 수 있겠지만, 굵힘에는 취약해서 열심히 닦아도 뿌연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방의 실내는 바닥을 제외한 천장과 벽은 무늬가 있는 합판마감으로 진행하였다.

합판을 작업하는 과정이 작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는 합판을 통째로 붙이는 형식이 아닌 ‘타일’형식으로 일일이 재단하여 붙여가는 작업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목수님의 시그니처 작업이었다. 하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자든, 고용주든,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 작업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굳이?’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목수님은 계약한 시간 외에 자신이 일하는 것은 신경쓰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저 작업을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타일 형식으로 합판마감

부모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소희재 현판



덕분에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이 완성되었다. 합판의 문양이 정신 사납게 느껴지기는커녕, 나이테의 흐름이 더욱 자연스럽게 방의 분위기를 높여주었다.

이쯤 되어 보니, 목수님이 아니라 목공예가나 예술가처럼 느껴졌고, 함께 공간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본체보다 짧은 시간안에 먼저 별채를 완성할 수 있었다.

별채가 완성이 되자마자, 우리보다, 부모님이 특히 더 좋아하셨고, 두 분의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따와 ‘소희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한자의 뜻 그대로 ‘희망을 부른다’, 기쁜 소식이 가득한 집이 되었다.

“연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굉장히 둘이 열심히 하고 있어, 있는 거라곤 작은 전기 톱으로 일하는데 부쉬진 선풍기로 벌레 쫓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

첫 미팅을 마치고, 목수님은 작은 아빠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다. 🐷



소희재의 밤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김혜현

4년차 갤러리리스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신의 명령을 거역한 뒤 세 가지 질문을 받고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천사 미하일이 등장한다. 남편을 잃은 한 여자가 쌍둥이를 낳는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미하일은 그녀의 영혼을 거두러 온다. 그러나 그는 엄마의 젖도 먹지 못한 채 남겨질 아기들이 불쌍해 차마 영혼을 거두지 못한다. 결국 신은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고, 미하일은 인간 세계에 던져진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된다.

나는 결혼하기 전 이 소설을 무척 사랑했다. 이 짧은 이야기는 결핍과 불안으로 뒤엉켜 있던 스무 살의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생물학 연구원으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던 나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다.

2011년 둘째가 태어났다. 아이는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있었다. 임신 마지막 주까지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다가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알게 되었다. 아이는 건강했지만 안면 기형으로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받았다. 두 돌쯤 되었을 무렵, 또 다른 질병이 의심되었다. 혈액세포 이상으로 인한 희귀병일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아이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혈액종양센터에 입원했고, 조직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치료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평생 믿어온 신 앞에서 나는 말을 잃었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었다. 이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서, 나는 이 일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살려 달라고도, 고쳐 달라고도, 차라리 나를 대신 데려가 달라고도 말하지 못했다.

그 병원에는 우리 아이처럼 판정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았다. 매일 병동 어딘가에서 울음이 터졌다. 엄마가 울지 않으면 아이가 울었다. 같은 병실에 있던 어떤 신생아는 여섯 달도 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울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다. 힘이 없어 거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그 엄마는 울지 못했다. 그 옆에서 나도 울지 못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어려서부터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내 아이를 고쳐 달라고 기도한다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그저 입을 다물고 아침이면 아이를 먹이고, 만화를 보여주고,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먹이고, 씻기고, 유모차에 태워 산책했다. 밤이 되면 지쳐 잠들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무언의 항의였는지도 모른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체념이었을까. 나는 가지고 있던 금붙이들을 팔아 선교 헌금으로 보냈다. 돌잔치 때 받았던 것들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을 더 이상 집에 두고 싶지 않았다.

기적이었는지, 단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을 열고 진행한 조직검사 결과, 아이는 ‘병명 없음’으로 퇴원했다. 1년 뒤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약 한 번 먹지 않았다. 가슴에는 조직검사 흉터만 남았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구순구개열 수술과 치과 교정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을 가진 작은 꼬맹이는 어느새 아빠보다 키가 커졌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며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신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천사는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나는 다른 교인들처럼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질병은 건강으로, 가난은 풍요로, 혼란은 질서로 바뀌기를 바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생에서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살기를 원했다.

둘째 아이를 통해 나는 ‘신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처음부터 정답을 알았다면 그토록 방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의 질문에는 늘 답을 향한 여정이 함께 주어졌다. 성경을 읽는 관점도 달라졌다. 나는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최근에 읽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천사는 인간이 잠든 사이 아스트랄체 안에 미래를 위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한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이미지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쳐 지나간다. 그 이미지들은 단 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은 미래를 전제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결국 한 사람의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는 천사가 우리를 잘먹고 잘살게 하려고 보호한다고 믿지 않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더 바깥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 번 죽음을 끝까지 상상해 보고 나니, 죽음 자체는 이전 만큼 두렵지 않았다. 대신 두려운 것은 이것이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불행을 나의 안도로 삼는 사회가 될까 봐.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아이만 건강하면 돼. 우리나라만 안전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될까 봐 두려웠다.

한국을 떠날 무렵 계엄 상황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에 와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또 다른 정치적 불안 속에 서 있다. 범죄가 벌어져도 정의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고, 이민자의 나라에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는 현실을 본다. 사람들은 총기 사건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마치 이미 지나온 역사 교과서의 한 장면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슈타이너 강연집 미니북

나는 혼돈 자체보다, 그 혼돈이 우리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봐 걱정한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사를 생각한다. 내가 잠든 사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빚어내고 있을 존재를 상상한다. 어젯밤 꿈에서 나는 방 안에서 어떤 숫자를 보며 울고 있던 여자를 붙잡았다. 아이들의 입시 문제로 불안해하던 내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조금 더 여유를 갖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천사는 정말 내가 자는 사이에도 일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여러 번 잃어버렸고, 그때마다 다시 사곤 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면 꺼내 읽는다. 나의 아프고 연약했던 스무 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이야기. 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감기에 걸려 얼굴이 달아오른 막내에게 한 번 더 읽어주어야겠다. 아이들이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_ 다른 이를 향한 사랑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_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완전히 아는 능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_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학교에서 밤수업중인 둘째



##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Youtopia)

X

작가 &amp; 전시기획자

나의 삶의 유토피아는 항상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와 가까운 미래였다. 대학교 때 봤던 데이비드 린치의 <Twin Peaks>와 데이비드 린치를 좋아했던 캐나다 화가와의 데이트,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좋아했던 독일 그룹 NENA와 테크노, 그 음악을 독일 남친과 같이 불렀던 기억과 테크노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비자 여행, 앤디 워홀의 스튜디오 ‘공장’, 그 ‘공장’을 직접 경험해 보려는 결심을 했던 나... 그리고 유년 시절 이름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나와 오늘날 이름을 바꾼 나... 나는 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앞으로 또 어떤 유토피아를 추구할지 비록 내가 나이지만 늘 흥미진진하다.....

한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 삶의 모든 순간이 어느 날 현재로만 집중되며 글을 위한 나의 사고가 잠시 정지가 되어 있었다. 사실 지난 3개월 동안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며 여러 모로 전시 기획을 비롯한 동시대 예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혼자 사유하고 있었다. 일은 일이고, 조직이 만드는 전시는 나의 연구나 방향과는 그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은 없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전시, 지금 시대, 내가 속한 조직, 그 안의 사람과 관계성이었다. 그 속에서 늘 그랬듯 난 내 자신을 발견했다.

몇 년 전, 프랑스의 한 아트 디렉터가 나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나곤 했다.“... 넌 000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해...”

사실 이 다름은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늘 느껴 온 바였다. 대학교 때부터 동시대 예술, 애니메이션, 건설업, 진공 산업, IT, 펫푸드, 관광업, 산업 기계, 대학원 연구소, 자동차 설계, 부동산 투자사까지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진급하며, 월급을 오르락내리락하였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남녀 차별, 그다음은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는 능력 있는 여자를 등쳐 먹으려는 남성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해서 결혼을 선택하려는 수많은 여성이었다. 특히 후자는 동시대 예술계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는 한국에 들어와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저히 불평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새는 이런 일이 적겠지만 10년 전 어느 날 하루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는 중에 같은 부서 남자 직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던졌다. 난 남자 친구 없으니 야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이었다. 사실 이 회사에서 이런 남성이 한둘이 아니라 별로 나에게겐 공격 같지 않은 공격이었고, 옆의 회계 부서 여직원은 그래서 모든 남성과 절대 상종하지 않는 편이었다. 나중에 아는 이사와 술 한잔할 때 그 이유를 알았다. 그는 내가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능력에서 수월하게 평가를 받고 대표가 날 아껴서 일부러 공격적으로 내뺀 것이었다.

하루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외국 기계가 고장이 나서 독일에 엔지니어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일 끝날 시간이 되어서 일찍 집에 갔다. 그때 2공장 라인 팀장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나중에 주말에 화가 나 핸드폰에 대고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나를 쫓게 만들려는 수법이었는데 역시 안 통했다. 당시 난 30대 초반이었는데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없던 일처럼 일을 했다. 시간이 좀 지나 어느 날 내가 밤 11시까지 일하며 우리 둘만 야식을 하게 되었다. 그는 슬쩍 미안한지 회사의 여러 정적 관계나 숨겨진 얘기를 해 주며 나와 화해를 이끌어 나갔다. 나중에 다른 남 직원을 통해 들어 보니 팀장이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장장, 그리고 우리 회사 대표한테 생산량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나를 죄인 것이다.

뭐 아시다시피 사기업에서는 뭐든 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다.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엄청 경쟁시키고, 당연한 법규와 에티켓도 안 지켜지고 사규도 자주 바꾼다. 내가 일한 회사에서 몇 분은 일하다 다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 여직원은 공장에 안 가려고 했지만 당시 난 힘든 일도 마다않고 일했고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보여 주고 싶었다. 대부분 회사 여직원은 다른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뭐 지금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과장일 때 예전 어떤 차장이 나를 ‘낭중 지추’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는 나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이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프랑스에서 20대 때 인턴을 시작할 시 어느 아트센터에서 언어가 잘 안 통할 줄 알고 처음에는 나에게 매우 단순한 노동만 시켰다.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남자가 드는 물건도 같이 드는 것을 본 세트 매니저는 일이 끝날 시기에는 거의 일을 안 줬다. 그리고 나와 같은 아시아 여성과 일을 해 본 적도 없고, 기껏해야 베트남·캄보디아 이주민, 일본, 중국인만 본 사람이었고 난 소심하고 다른 외국 남자가 채갈 거라 믿는 것 같았다. 지금은 한국의 위상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나 과소 평가가 많이 사라졌지만, 내가 유학할 당시 쿼터 높은 프랑스 예술계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특히 아시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며 오리엔탈리즘에 젖은 보수 유럽인의 상상을 영화나 말로 들으면 구토가 났다. 이후 파리 출신의 다른 아트센터 원장과 만나서 일했을 때 그의 진취적인 사고를 발견하며 난 좀 기뻐했다.

사실 난 그런 아시아 여자도 아니고 오직 내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남성과 연분이 있었지만 그들의 ‘백’으로 전시를 하거나 직업을 얻은 적은 없었다. 다 공모전, 공채, 헤드헌터의 추천으로 일을 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교롭게도 날 도와준 이는 대부분 남성이었고, 대부분 날 의리 있는 신용 있는 사람이라 평가했다.

하루는 같이 일했던 한 대표님이 나에게 “남자 두세 명 있는 것보다 나와 같이 일하는 게 더 든든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난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다. 이 대표

님은 LG에서 17년을 일하시고 사업을 시작하며 부도에, 투병에, 직원의 배신을 이겨 낸 대한민국의 자수성가 대표님 중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도와준 여성이 왜 없었냐?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위치를 가지면서 일을 하는 지 스스로 물어보면 알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여성이 같이 이 위치에 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 싸워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다시 동시대 예술로 일을 하면서 부족한 수입을 위해서 여러 알바를 했었다. 하루는 통역 업무를 뛰었다. 2달 동안 거의 매일 새벽 4시,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차를 몰아 영동의 00공장에 출근했다. 20억 정도 하는 대형 페커 헤드 머신 설비를 커미셔닝하는 것을 도왔다. 매일 영하로 10도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이탈리아, 독일 엔지니어가 날 신임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런 업계는 여성이 거의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대표는 기업을 엉망으로 경영하며 마피아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공장 바닥은 3미터 정도 파여 있었는데 콘크리트라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날 정도였다. 심지어 이 바닥 설비도 내가 도면을 보니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기계는 대형 파이프(머신) 1미터~3미터를 만들어내는 독일 기계였고, 공장에 기계가 들어서면서 난 정말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이 커졌다. 독일에서 고객 관리형으로 만들어서 보낸 기계가 아니라 재고로 가진 기계를 보낸 걸 알아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가 봤을 땐 공장에 기계가 커미셔닝되어도 망할 구조였다. 난 매일 일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 대우, 가족 기업의 경영 구조 문제, 중간에서 나에게 책임을 위계하려는 한국인 브로커 등 여러 스트레스를 겪어야만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 대표는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인지 눈치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점심 식사 때 이 모든 문제를 2시간 내내 자기 베프이자 회사 공장장의 탓으로 돌려대며 부끄러움을 없애려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생각이라고 슬쩍 운을 뗐다.

난 그때 인간은 교묘하고 간사한 존재라고 또 확신했다. 그리고 나에게 베프가 없는 것이 축복이라 느꼈다. 난 그날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참 문제가 많아서 경영이 어려울 것 같다. 시간이 지나서 1년 후 거기에서 만난 남성분의 문자를 받았다. 그는 커미셔닝 이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져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우리는 눈앞에 우리가 가진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 멀리 내다보려 하지만 여러 아름다운 어구에 넘어간다. 하지만 간교한 말은 늘 지켜지지 않는다. 내가 동시대 예술로 돌아와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내가 다른 업계의 경험을 통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단호해졌고 실체가 없는 사람과 실체가 없는 작품을 구별하게 되었다. 그리고 늘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게 되었다.

변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작가를 만나고 작업실을 방문하며 삶과 그의 철학,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을 매우 행복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전시를 가든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작품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앞으로도 늘 그랬듯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더 깊은 사유를 하며 올해 나의 기획전을 준비할 것이다. 난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내 길을 가며 유토피아를 이뤄 가는 계획에 늘 그랬듯 충실할 것이다.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겨났다. 장소를 옮기고 다른 실험적 전시를 하고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게 되는 유토피아가 올 때까지 무소의 뽕처럼 갈 것이다. 🐮



Abdullah Al Saadi painting series

# 엄마라는 늑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지문이 닳도록 하는 돌봄\_2017, 한지에 분채, 25x40cm

얼마전 우리집에 엄마가 다녀 가셨다. 멀리 사는 엄마는 우리집에 온 적이 몇 번 없으시다. 우리집에서 한시간 거리 외할머니 산소도 올 겸, 작년에 이사한 우리집도 궁금하다며 오셨다. 이사한지 일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사한 집 첫 방문이라고 휴지와 마트에서 비싸 보이는 과일을 이것저것 사 오셨다. 엄마에게 나는 여전히 앉은자리에서 과일 한 쟁반씩 먹어 치우던 딸인가보다. 그렇게 먹던 때는 30년 전인데 말이다.

다음날 엄마를 기차역으로 배웅해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교적 쉬운 길인데도 헤메이며 운전을 했고 집에 오자마자 몸살기운에 뺨어 버리고 말았다.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속이 백지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오늘 할 일들을 더듬더듬 생각해 내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었다.

‘노인엄마’라는 바이러스에 걸려 버린 것 같았다. 엄마가 사온 휴지의 포장지에 ‘부자되는 집’ 문구를 물끄러미 쳐다 봤다. 부자.... 열심히 살아 볼게요. 자신 없지만요

라깡의 말대로 버리지 못한 어머니의 시체를 껴안고 울며불며 사막을 헤매는 것. 이것이 딸들의 인생이다. 몇 년 전 내가 쓴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기 보다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나 어머니를 만난 순간 나는 길을 잃었다.”

- 정희진, 어머니는 말할 수 있을까? -

## 41. 2026.3

어디선가 듣기를 “하느님이 아이들을 다 돌보기에는 손이 부족하셔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데.....” 그 엄마들은 하느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 때문인지, 엄마가 되는 순간 돌봄의 늪에 빠지게 된다.

돌봄의 늪은 한번 빠지면 평생 그 곳에서 자리잡게 된다. 가수 조관우의 ‘늪’의 노래가사처럼 말이다. 멈출 수가 없었어.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아....

아이들은 돌봄의 늪에서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서 늪에서 나와 사막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다.

사막에 드리운 엄마의 그림자는 깊고 길다.

엄마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다. 



막회. 세상에 맛있는 회야 정말 많겠지만 막회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음식이란 생각이 든다. 재료가 되는 생선이 가지는 고유의 맛도 나름은 살리겠지만, 대충 이 생선 저 생선 잡아다가 쓱쓱 채를 쓸 어가지고 양념과 함께 버무리먹는 일종의 비빔문화라하면 비빔문화일 것이다.

얼핏 티비에서 어선을 탄 선원들이 밥 때가 되었을 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생선들을 잡아서 재빨리 썰어서 초장과 양파 정도에 무쳐먹는 것을 본 적 있다. 바쁘니 서둘러 식사를 때우기 위함도 있겠지만 나는 그 안에서 막회만이 가진 푸짐하고 편안함을 느꼈다. 가식 없고 격식 차리지 않고 양껏 맛있게 먹어보자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 배도 채울 겸 편하게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막회가 생각이 난다. 막회집은 대충 어딜 가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내가 가는 종로의 한 식당은 양념장이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들어있는 것은 배와 양파, 미나리, 오이 정도인데 쓱쓱 비비고 나면 양이 매우 푸짐해서 가끔씩 셋이 가도 남을 때가 있다.

그런 푸짐함에 뒤섞이며 서로 사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 보면 이 음식이 가진 푸근한 매력 속에 어 느덧 빠져 있는 것이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치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6. 3 / 41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mailto: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김혜현, 이채연, 조은영, 한량윤씨, X